

第61回1級：聞きとり・書きとり記述式問題の解答

(以下の解答はあくまでも正答の一例です。これ以外の答えも採点基準に沿うものであれば、正答とします)

7 文장의 일부를 문맥에 맞게 일본어로 번역하십시오.

<2点×4問>

1) ①(본전 뽑고도) 남을 만큼 ②(가성비가 좋다마다요.)

→①(元手を差し引いても)余るくらい②(コスパが最高ですよ。)

2) ①(추경 예산을) 편성해 ②(경기 침체의 난항을) 극복할 방침이다.

→①(補正予算を)編成し、②(景気低迷の難局を)克服する方針だ。

3) ①(채신없이) 왜 또 ②(성질을 부리고 그래.)

→①(軽率に)なんでまた ②(腹をたてるのか/かんしゃくをおこすのか。)

4) ①(너무 노곤해서) 몸을 ②(가눌 수가 없었다.)

→①(あまりにも疲れて)身体が/身体を②(言うことをきかなかった/
制御できなかった。)

8 文장의 일부를 한글로 받아쓰십시오.

<2点×4問>

1) 소란스러워 ①(도통) 뭘 말인지 알아들을 ②(재간이) 있어야지.

2) 저런, ①(다래끼가) 나 눈언저리가 발갱게 붓고 ②(끓았네).

3) ①(뽀약벌이) 내리쬐더니 갑자기 ②(장대비가) 퍼부었다.

4) ①(단아한) 용모에 ②(웁조리는 듯한) 말씨까지 고상함 그 자체였다.

第 61 回 1 級 : 筆記記述式問題の解答

(以下の解答はあくまでも正答の一例です。これ以外の答えも採点基準に沿うものであれば、正答とします)

13 다음 문장을 문맥에 맞게 일본어로 번역하십시오.

<2 点×4 問>

- 1) 지방 자치 단체별로 민원 서비스 평가가 천양지차로 나타났다.
→地方自治体ごとの住民サービスに対する評価に、雲泥の差が生じている。
- 2) 바둑판에서 소위 내로라하는 고수들이 모였다.
→囲碁の集まりで、我こそはといういわゆる巨匠たちが集まった。
- 3)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 꺾다 놓은 보릿자루가 따로 없네그려.
→うんともすんとも言わないから、存在感がまったく無いね。／まさに借りてきた猫のようだね。
- 4) 안 까무러친 게 다행이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니까요.
→卒倒しなかったから良かったものの、あきれてものも言えなかったんですよ。

14 다음 일본어를 문맥에 맞게 번역하십시오. 답은 하나만 한글로 쓰십시오.

<2 点×4 問>

- 1) 彼の話は筋も通っていないし、理にもかなっていない。
→그 사람 말은 조리도 없고 이치에도 안 맞는다.
- 2) 東京為替市場で円安ドル高が進み、円相場が下落した。
→도쿄 외환 시장에서 엔화 약세 달러 강세가 진행돼 엔 시세가 하락했다.
- 3) 窓口での「たらい回し」は、縦割り行政の弊害そのものだ。
→창구 간에 서로 떠넘기는 대응은 수직적 행정의 폐해 그 자체다.
- 4) 自分の境遇を嘆いた切ないメロディーが、聴衆の琴線に触れた。
→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애처로운 선율이 청중의 심금을 울렸다.